

#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Jan Hus

이은선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순교당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얀 후스(Jan Hus, 1372(?)~1415)다. 위클리프가 영국 종교개혁의 새벽별(Morning Star)이었다면 후스는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었다. 그는 보헤미아에서 자국어로 대중적인 설교를 하며 교회개혁을 외치다가 1415년 콘스탄츠 종교회의(1414~1417)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교회개혁의 열망은 1세기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었다.

## 베들레헴 채플의 개혁적인 설교자

후스는 현재 체코공화국에 속한 보헤미아의 남쪽 프라하띠체(Prachatice) 인근 마을인 후시네츠(Husinec)에서 소작농의 자녀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으며, 그의 이름은 그 마을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아주 뛰어나 13세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한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하고 1393년에 문학사 학위를, 1396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 후스는 교수로서 프라하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1398년에는 정식 교수가 되었다. 1401년에 후스는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1402년 3월에 베들레헴 채플의 담당목사이자 설교자가 되어 교회 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후스가 교회의 개혁자가 되는데 보헤미아 교회의 개혁사상과 윌도파의 사상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위클리프(Wycliffe)의 저술들이었다. 영국의 리처드 2세와 보헤미아 국왕의 여동생이 1382년에 결혼한 후 프라하 대학생들이 위클리프가 가르쳤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의 저술들이 보헤미아에 들어오게 되었다. 1401년에 프라하의 제롬(Jerome of Prague)은 옥스퍼드에서 돌아오면서 위클리프의 『대화록』(Dialogus)과 『삼자대화록』(Trialogus) 등의 저서들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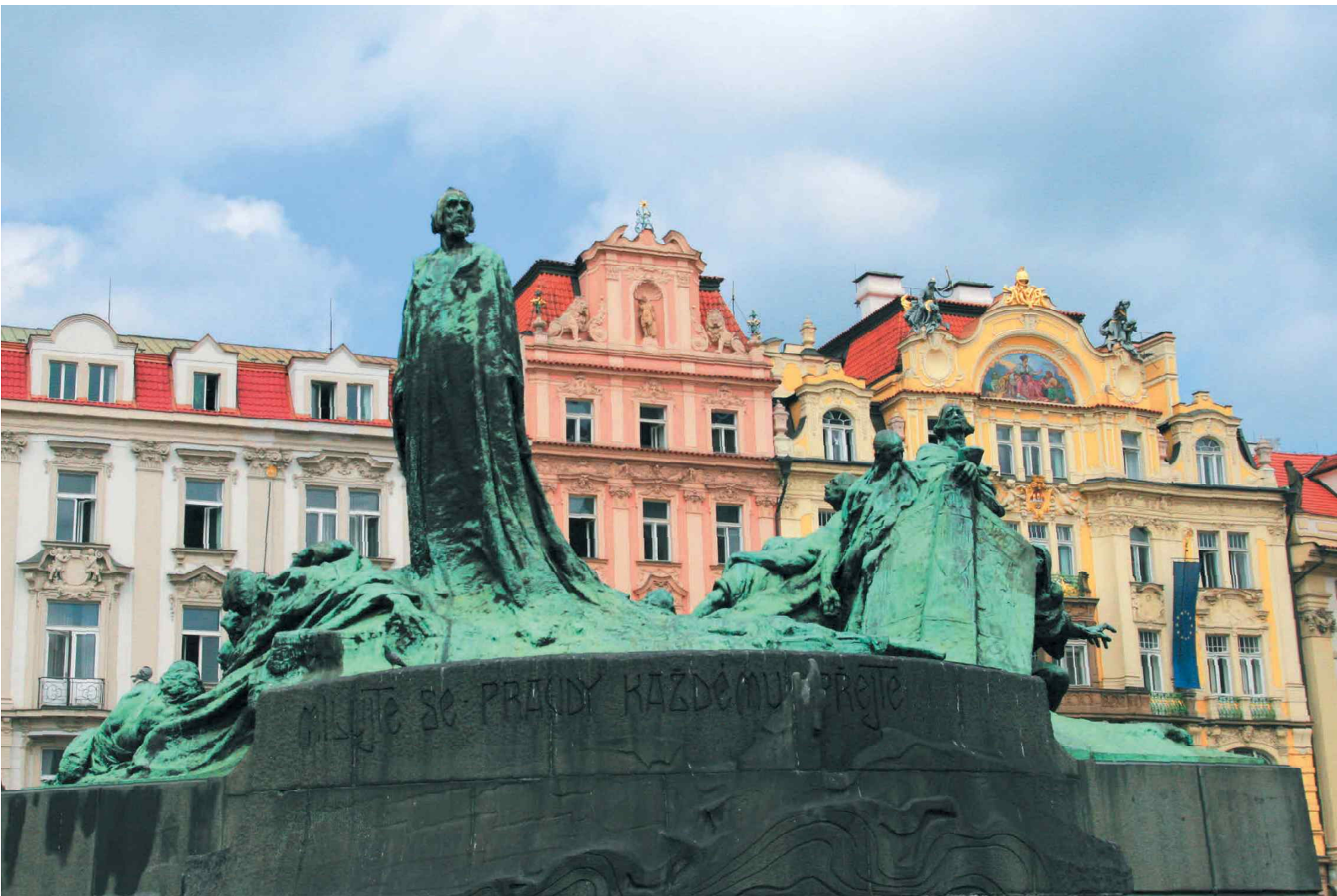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1372년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황권에 대항하고 왕권 강화에 협력하였다. 그는 교회는 선택받은 자의 총수로 구성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다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타락한 교황은 마귀의 수석 대리인, 타락한 사제들은 강도들이며 타락한 수도원은 도

독들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자국어로 설교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축성 후에도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여 화체설을 부인하였다.

당시 보헤미아인들에게는 가톨릭교회의 전체적인 부패상과 함께 독일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짙고 있었다. 교회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 후스는 확신을 가지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이끌어 갈 지도자로 준비된 인물이었다. 후스가 베들레헴 채플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자국어 설교를 통해 분명한 개혁의 메시지를 선포하

자, 보헤미아의 회중은 그의 설교에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후스는 초기에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설교를 주로 하였다. 후스는 성경을 연구하며 깨닫게 된 종교적인 악습들에 대해 담대하게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였다. 1404년 그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 낸 기적들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출판했고, 성직자들의 탐욕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후스의 설교는 당시 교회의 개혁을 원했던 국왕 벤체슬라우스와 프라하의 대주교 즈비네크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총회 설교자로 지명되어 1404년부터 1407년까지 총회에서 교회의 부패와 개혁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이 총회 설교에서 후스는 동료 성직자들에게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을 역설하였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고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예배에서 회중들에게 체코어로 된 옛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하였다.

### 위클리프 저작에 대한 논쟁과

#### 대학 개편을 둘러싼 대주교와의 대립

후스가 국왕과 대주교의 지원을 받으며 성직자들의 부패상을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을 때, 위클리프의 저술과 대학의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1403년에 위클리프 저작들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어 그의 정죄된 견해들을 지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406년에는 위클리프의 저술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다. 1408년 5월에는 다시 위클리프의 사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학사까지는 위클리프의 『대화록』, 『삼자대화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De Corpore Christi)를 읽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후스는 일관되게 위클리프의 사상을 변호하였다.

이렇게 위클리프의 저술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라하 대학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당시 프라하 대학은 독일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국왕 벤체슬라우스와 후스의 지도하에 체코인들이 지배하는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409년에는 쿠트나 호라(Kutna Hora) 칙령으로 프라하 대학의 운영권이 체코인들에게 넘어가자 독일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학생 숫자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어 대학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후스는 민족주의적인 대학 개

편에 반대하던 대주교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후스가 중심이 되어 개혁이 진행되어 나가자, 1410년 교황은 대주교에게 설교 금지권을 주었고 대주교는 후스의 설교를 금지하였으나, 그는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 이 내게 알려 주신 진리, 특별히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죽기까지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전능하게 서 있으며 남아 있기 때문이다.” 프라하 대주교가 교황의 지시에 따라 1410년에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하자, 후스는 이 결정에 반대하여 라틴어로 『이단 저서의 독서에 대하여』를 집필하고,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대학 토론회를 소집하였다. 교황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하였고, 자신의 영국인 “교사”의 사상을 옹호하는 저작들을 집필하였다. 대주교는 결국 후스를 파면하였고 새로 선출된 교황 요한 23세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1411년 3월 모든 프라하 교회에 이 결정이 공포되었다. 후스는 이에 대해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스께서 악인과 같이 파문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재산과 친구들과 세상의 존귀와 우리의 하찮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잃겠는가? 형편없이 사는 것보다는 잘 죽는 것이 낫다.” 후스로 인하여 베들레헴 채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사이에 혁명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1412년에 교황 그레고리 12세는 다시 위클리프의 저술들을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 사면부 판매 반대와 국왕의 개혁활동 반대

1411년에 피사 교황 요한 23세는 로마 교황 그레고리 12세에게서 로마를 탈취한 나폴리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고자 사면부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사면부 판매에 후스는 1412년에 대학 토론회에 참가하여 이것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위클



리프의 저술들을 인용하면서 교황들은 검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며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면부 판매에 대한 비판으로 지금까지 후스의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던 국왕의 후원을 잃게 되었다. 국왕은 교회당국과 협력하고자 이러한 후스의 설교에 자극받아 사면부 판매를 기만이라고 비판한 3명을 처형하였다. 후스는 이들을 베들레헴 채플에 안장하고 그들을 위한 특별 설교를 하였다. 이러한 후스의 행위로 인하여 프라하 도시에 교황의 파문이 공포되었다. 교황이 왕도 이단으로 선포할 것을 염려한 후스는 18개월 동안 프라하를 떠나야만 했다.

### 파문 하에 설교와 저술들을 통한 개혁 주장

그러나 그는 이 기간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그는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였고 비밀리에 프라하를 방문하여 추종자들을 격려하였다. 그는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책들을 체코어로 저술하였는데, 후스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저술가로서도 개혁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그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사면의 효능, 예를 들어 성직자들이 형벌을 용서하여 주는 실행들을 반대했고, 성직 매매를 비난했다. 공공연히 자행되던 성직매매

는 후스가 맹렬히 비판하던 것으로 당시 교황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였다. 후스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직매매에 대하여』(De simonia)를 저술하여 체계적이고도 단호하게 그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성찬에서 평신도에게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화체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축성 후에도 빵과 포도주로 남아 있다는 위클리프의 입장을 지지했다. 후스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위클리프처럼 체코어로 성경 번역을 추진했다. 그는 이러한 성경번역을 통해 체코어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웠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했다. 수세기 동안 의문 없이 받아들인 교회의 교리나 실행들을 감히 비판하지 않았다면 후스는 아마 그의 침상에서 평안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 후스는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물으면서 다시 한 번 성경으로 그들의 진리와 정당성을 시험했다. 그 후 그의 적들은 그를 ‘이단’이라 불렀다.

그는 프라하를 떠나 있던 1413년에 『교회론』을 저술했는데, 처음 10장은 위클리프의 저술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그의 가르침에 의존했음을 보여 준다. 교회론에 대한 그의 사상은 로마가톨릭교회와 성직매매에 대해 프라하 대학에서의 8명의 신학자들과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되었다. 『교회론』에서 교회의 본질, 성례 생활의 실천, 그리스도의 수위권, 교회 안에서 권위의 역할 등의 문제에 대한 그의 논의는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개혁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철저하게 성경과 초대 교부들의 권위에 의존하였다. 그는 『교회론』 13장에서 자신의 신학적 논의의 기준에 대해 “그리스도의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 거룩한 성경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라고 했다. 이처럼 그는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만을 따르고자 하였다.



그는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위클리프의 입장에서 예정론적인 교회론을 주장한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이고, 미리 예정된 자들의 총수이며, 죽은 자나 산 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정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정론에 토대를 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인 동시에 종말론적인 교회이다. 그런데 가시적 지상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가라 지이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의 참된 구성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끝까지 신앙을 견인하는 사람들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지상의 제도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으나, 후스는 이처럼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보았다. 예정론에 근거한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이다. 누가 진정으로 교회에 속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죽음 후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후스는 이 종말론적인 성격에 의지하여 당시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삶을 비판한다. 그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교황과 교회지도자들의 직책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황과 고위성직자들도 성도들의 순종과 신뢰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후스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고 추기경들이 교회의 몸이라는 당시 로마가톨릭의 주장을 반복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후스는 그의 교회론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6-19절을 분석하여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후스는 18절을 “반석-페트라(Petra)-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페트로(Petro)-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참 반석인 나를 증거 하는 자라. 내 자신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했다. 페트라(반석)는 페트루스(베드로)의 파생어가 아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말하였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는 다른 의미에서 교회의 반석이다. 따라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모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았다. 후스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고 설명한다.

베드로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은 그의 믿음의 견고함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 때문이다. 비슷하게 베드로의 대리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신앙을 설교하는 것이다. 천국열쇠는 재판권이나 통치권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여 그들을 방면하거나 붙잡아 두는 것이다. 후스는 여기서 교황들의 사도계승권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들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열쇠는 죄에 대한 분별하여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후스가 당시 교황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인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실천하느냐의 여부였다. 교황은 지배자가 되면서 권위를 남용하기 시작하였고, 무지와 돈을 사랑하며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교황까지 생겨났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제도나 기구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현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스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덕이 실행되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그분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덕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은 세속적인 집단이다. 오히려 타락한 생활을 하는 로마 교황이나 주교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후스는 교황 알렉산더 5세와 요한 23세를 반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의 칙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1409년 베를레헴 채플과 다른 채플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교황 알렉산더 5세의 교서에 불순종한 이유를 설명한다.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과 행동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후스는 하위 성직자들과 심지어 평신도들에게도 교황과 고위성직자들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령과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던 파문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교황들은 자신들의 경쟁자였던 황제나 국왕들을 굴복시키려고 파문권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파문권은 주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권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콘스탄츠 공의회와 안 후스의 화형

후스는 개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주교와 국왕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414년에 열린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후스는 30가지의 이단적인 내용으로 고발당하였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 지기스문트 황제는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도록 후스에게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통행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는 11월 3일에 공의회장에도착했으나, 교황은 교회에 의해 파문당한 자는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11월 28일에 그를 체포하여 도미니크 수도원에 감금하였다.

그는 지하 감옥에서도 결코 진리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책들을 저술하고 많은 편지들을 썼다. 그는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감옥에 누워 있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네. 나는 이것을 주 하나님을 위해 소망 안에서 견디고 있네.”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의회는 30년 전에 죽은 위클리프를 정죄하고, 그의 저술들을 불태웠다. 후스는 공의회 앞에서 1415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이나 심문을 받았다. 후스는 공의회가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 위클리프의 가르침들에 대해 변호했다. 그는 자신이 그의 가르침을 수용한 이유를 “그가 아니라 성경이 자신에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후스는 자신이 틀렸다는 성경적 증거를 보여 준다면 공의회는 “지시와 교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하여 선포했다. 후스를 회유하여 그의 입장을 포기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다. 7월 6일 지기스문트 황제와 공의회는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의 전파를 위해 이 무섭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가장 끈기 있고 겸손하게 견디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 루드비히 공작이 마지막으로 그의 견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을 때, 후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오늘 기꺼이 기쁘게 죽을 것이다.” 그 후 장작에 붙이 붙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순교했다. 그는 죽기까지 진리를 위해 굳게 서 있었다. 일생토록 후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파했으며, 참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 후스의 종교개혁의 의의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서에 근거하여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물론 후스는 아직 루터와 같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세 교회의 타락상이 성서의 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설교활동을 하였다. 그러므로 후스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유일한 권위인 성서에 근거하여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베들레헴 채플에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인 독일어로 설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설교와 함께 프라하에서 추방되어 있는 동안에 『교회론』을 저술하여 예정론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교회관을 정립하였고, 그러한 교회론에 근거하여 로마가톨릭교회의 계급적인 교회관, 성직매매, 사면부 판매, 포도주를 주지 않는 성만찬 등을 비판하고 성경 번역을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 교황의 부도덕한 생활을 근거로 그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후스의 개혁활동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덕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후스는 교리개혁보다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개혁하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탄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의 주장은 1세기 후에 루터에게 계승되어 피어나게 되었다. 루터는 1519년 에크와의 라이프치히 논쟁 중에 “나는 후스주의자이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의 개혁사상에 동조하였고, 그것을 이어 받았다.

### 글 | 이은선

서울대 사대 역사학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총신대 목회학석사(M. Div), 신학석사(Th. M.), 철학박사(Ph. D.)를 거쳐 현재 안양대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자 신학대학장, 교목실장,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이다.

